

전주지역 판소리의 전승 과정과 양상 연구

-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을 중심으로-

백 은 철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전주 국악원 개원과 판소리 교육의 지속 |
| 2. 전주권변의 설립과 변화 과정 | 5. 맺음말 |
| 3. 전주권변의 예능 교육과 판소리 강사 | |

국문초록

전주는 판소리 관련 공연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도시이자, 판소리 전승의 핵심 도시이다. ‘전주 대사습놀이’와 ‘완산 전국 국악 대제전’, ‘전주 소리축제’ 같은 경연대회와 축제가 매년 열리고, 전북도립창극단의 ‘창극’ 공연과 전주 시문화재단 ‘마당창극’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또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등 판소리 명창 다수가 전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활발하게 판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가 이렇게 활발한 판소리 전승·공급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이 존재한다. 전주권변(설립 당시는 ‘전주 예기조합’)은 1910년대에 설립된 기생의 가·무·악 교육 공간으로, 해방 직후까지 전주지역 국악교육의 거점이자, 지역 명인·명창들의 생활 기반이 되었다. 전주국악원은 전주권변 해체 뒤에 조직된 사설국악원으로, 전주국악원 역시 1960년 해체될 때까지 전주지역 국악교육을 담당하였다. 즉, 이 두 공간을 기반으로 전주지역 근·현대 판소리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주지역 판소리 전개 과정에서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이 갖는 무게에 비해 두 기관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였다. 두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활동한 명창들에 대한 자료도, 연구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 두 기관의 설립·운영 과정, 그리고 그 공간에서 활동한 명창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주지역 판소리 전승 과정은 물론 판소리 전승 양상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전주 판소리, 전주권번, 전주국악원, 전주 명창, 이기권, 홍정택, 최승희

1. 서론

전주는 판소리 전승의 핵심도시이자, 판소리 관련 공연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도시이다. 전주에서는 ‘전주 대사습놀이’와 ‘완산 전국 국악 대제전’, ‘전주 소리축제’ 같은 경연대회와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전북도립창극단의 ‘창극’ 공연과 전주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마당창극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전주에는 이일주와 조소녀, 성준숙, 김소영을 중심으로 한 동초바디와 최승희와 모보경을 중심으로 한 정정렬 바디, 그리고 김영자와 김일구를 중심으로 한 강산제 등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²⁾

1) 2018년에 ‘전주 대사습놀이’는 44회(1975년 시작), ‘완산 전국 국악 대제전’은 23회(1996년 시작),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17회(2001년 시작)를 맞이했다. 1989년에 창단공연을 시작한 전북도립창극의 공연은, 지난 8월에 51번째 정기공연(‘배비장전’) 올렸고, 2012년부터 시작한 ‘전주마당창극’ 공연은 현재까지 한옥마을 일대에서 정기 공연되고 있다.

2) 이들 대부분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들이기도 하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에는 <춘향가>에 최채선·조소녀·이용길, <홍보가>에 이순단·김명신, <적벽가>에 성준숙, <심청가>에

그런데 전주가 이렇게 활발한 판소리 전승·공급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 전주도립국악원 같은 판소리 교육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들이 존재한다.³⁾ 특히 근대 초기에 설립된 전주권변(설립 당시는 '전주예기조합')과 해방 후 조직된 전주국악원은 전주지역에 판소리가 안착·전승될 수 있었던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한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초·중반 전주지역 국악 교육과 소비가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이 당시 주변부로 밀려나던 지역 명인·명창들에게 중요한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⁴⁾

실제로 당시 판소리 명창 다수가 이곳 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을 거쳐 갔다. 판소리 명창으로 널리 알려진 장판개, 공대일은 물론, 전주 지역에서 이름이 높았던 이기권, 김동준, 홍정택 등도 이 공간에서 판소리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최난수, 정미옥, 최승희, 성준숙 등 해방 이후 전주지역 소리판을 다채롭게 꾸며던 명창들도 한때 이곳에서 판소리 공부를 하기도 했다. 전주지역 판소리를 다루는 글에서 이 기관들과 이곳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도, 이 기관들과 이 기관들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에 대한 설명 없이는 전주 지역 판소리 전승 과정을 온전히 그려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지역 판소리 전승과정에서 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이 갖는 무게에 비해, 두 기관의 설립·운영 과정과 이 기관들에서 활동한 명창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행정기관에서 발간된 자료들은 전주지역 판소리

이일주·유영혜, <수궁가>에 박양덕·왕기석·김소영 명창이 있다. 보유자 중 이일주, 최승희, 조소녀, 성준숙, 김소영 명창이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

3) 판소리사를 살펴보면 엄덕준, 주덕기와 같은 전주 출신 명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후기까지 전주는 기본적으로 전주 관아와 향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판소리를 소비하던 소비공간이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이영금, '조선 후기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국어문학』 53, 국어문학회, 2012, 97~126쪽 참고.

4)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38, 한국국악학회, 2005, 19쪽 참고.

전개 과정과 전주지역 판소리 명창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소략하다.⁵⁾ 이보형과 정양·유영대의 조사보고서는 전주지역 명창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명창 중심의 조사여서 전주지역 판소리 전승과 전개과정을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⁶⁾ 최근 황미연의 연구를 통해 전주지역 권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⁷⁾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 그리고 그곳에서 활약했던 명창들에 대한 여러 사항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의 설립·변화과정을 재구해보고, 그곳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승관계 통해 전주지역의 판소리 전승 양상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주 판소리 전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전주권번의 설립·변화과정과 활동명창을 살펴보고, 이후 전주국악의 설립·변화과정과 그곳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2. 전주권번의 설립과 변화과정

기생조합은 관기(官妓)⁸⁾제도가 해체된 뒤 새롭게 조직된 근대적인 기생조직으로, 전근대 사회 가·무·악을 담당하던 교방⁹⁾의 후신적 성격이 강하다.

- 5)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전주시, 1964. 전라북도, 『전북의 판소리』, 전라북도, 2003.
- 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판소리 유파』, 문화재연구소, 1992. 정양·유영대, 『전북 판소리의 전승에 관한 조사연구』, 『판소리연구』 2, 판소리학회, 1991.
- 7) 황미연, 『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민속원, 2012.
- 8) 조선시대 관기는 궁중의 연향부터 지방 관아의 잡일이나 관리의 수청까지 다양한 층위의 노동을 직역 형태로 부여받았다.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1)』,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435쪽 참고.

관기제도는 1984년 신분제 철폐를 시작으로 1897년 지방관기 1908년 궁중관 기까지 철폐되면서 전면적으로 해체되었고, 이때 가·무·악 관장 기관인 교방도 함께 해체되었다. 이후 기생조합이 각 지역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908년 9월 ‘기생 및 창기단속 시행령’으로 기생들은 ‘조합’ 형태로만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¹⁰⁾ 단속령 발표 후, 한성기생조합소를 시작으로 평양예기조합, 동래기생조합, 다동기생조합, 광고기생조합, 시곡기생조합, 신창기생조합, 전주예기조합 등 전국적으로 기생조합들이 설립되었다.¹¹⁾

이 기생조합들은 19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제의 변화된 정책 시행으로 권번(券番)이라는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다. 일제는 1916년 <숙옥영업취체 규칙> 등의 법령을 발표하는데, 이 법령 시행으로 조선의 기생은 일본의 예기와 동일한 법령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영업장소가 요리점으로 제한되었고, 요리점과 기생을 이어주는 권번체계가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¹²⁾ 권번은 기적에 등록된 기생들을 요청에 따라 요리점에 보내주고 수고

9) 교방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방 관아에 있던 부속 기관으로, 관기들/여악들은 이곳에서 노래·춤·악기 등을 익혀 관변 행사뿐만 아니라 시정 유흥 공간에도 참여하였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교방이 있던 곳은 전주부, 광주목, 순창군, 순천 좌수영, 무주부, 제주목 6곳에 있었다. 황미연, 앞의 책(『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55쪽 참고.

10) 송연옥은 이 칙령들이 일제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이라고 본다. 또 이 단속령 公布전에 관기의 관할관청이 궁중의 음악을 담당했던 장악과에서 경무청으로 옮겨 간 것에 주목하면서, “기생은 가무음곡의 保持者가 아니고 단속될 대상으로 전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송연옥, 『대한 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 과정-, 『한국사론』 40, 1998, 261쪽.

11) 정경운, 『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국학연구론총』 18, 2016, 47~48쪽 참고.

12) 일제는 1916년 총감부령 제1호 <숙옥영업취체규칙>, 제2호 <요리음식점영업취체규칙>,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제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발표했다. 이 법령을 바탕으로 일제는 예기와 창기, 작부의 구분과 숙박소, 요리점, 음식점, 대좌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 법령 이후 조선의 기생과 일본의 예기가 일본 현지의 법령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영업장소가 요리점으로 한정되었고, 기생과 요리점을 잇는 권번조직이 대두되면서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정경

료를 받는 중간 역할을 수행했다¹³⁾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대정권번, 한성권번, 경화권번 등 권번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 되었고, 1940년대가 되면 권번의 수가 배에 달하게 된다.¹⁴⁾

전주권번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설립·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영제가 해체되면서 전주부 교방이 사라지고, 전주권번의 초기 형태인 전주기생조합이 1913년에 조직되었다.¹⁵⁾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전주기생조합의 초기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915년 9월 8일자 『매일신보』 보면 “전주 예기조합에서는 공진회에 출연하기위하여 갑반의 명기 향란, 능주, 우순, 월향, 하월, 옥선, 채선 옥주, 능운, 초옥, 능선의 12명을 뽑아 가무 및 구연극은 한 달 이전부터 연습하는 중이더니 이번에 준비가 다 되어 말일 경에 출발 상경한다더라.”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전주예기조합은 그 초기부터 상당한 체계와 조직력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생조합은 규모와 예능 면에서도 다른 지역을 압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공연했던 상황들을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매일신보』에 “광주와 목포에서 독자위안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에 문혀 있는 기생들이 자신의 고을 위안회에 타관 기생이 출연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야 하여 (중략) 전주 기생은 다년 학습한 가무가 막힐 것이 없으나 광주기생은 준비가 없는 까닭에 따르지 못하였으며 (중략) 또한 이 원인은 조합이 없는 까닭”¹⁶⁾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전주지역의 기생들이 광주 지역에서 공연을 할 만큼 인정을 받았으며, 다년간 학습으로 그 공연실력 또한 매우 우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실제

은, 앞의 논문, 48쪽; 최윤영, 「1910년대 기생들의 춤 교육과 공연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쪽 참고.

13) 황미연, 앞의 책(『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79쪽 참고.

14) 황미연, 위의 책(『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76~77쪽 참고.

15) 전주기생조합 설립일은 다음 잡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기생조합은 대정 2년 4월(1913년 4월)에 설립하였는데 기생은 상시 17명이더니 현재는 37명이더라. (후략)” 『전남북의 담판-전주예기조합』, 『반도시론』 2권 8호, 1918. 8. 72쪽.

16) 『매일신보』, 1917. 6. 17.

로 당시 전주 기생들의 활동이 광주기생조합이 설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기생조합들이 1920년을 전후해 권번으로 전환되어갈 때쯤 전주예기조합도 전주권번이란 명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는 ‘권번자선 연주회’, ‘전주권번의 美擧’와 같은 신문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¹⁸⁾ 물론 한동안 전주권번과 전주예기조합 명칭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1920년 이후에도 신문기사에는 기생조합과 예기조합, 권번이라는 명칭이 구분 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권번 전환 당시 전주권번의 규모는 신문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3년 2월 20일자¹⁹⁾에 “전주권번 오십여 명 기생 중 일부분은”이라는 기사 내용이 보이는데, 전주 권번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한 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러나 전주권번 운영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다. 전주권번은 1930년 전후로 임금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²¹⁾ 1930년대 경제공황

17)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북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예기조합 혹은 권번이 설립·운영되었다. “1923년에 군산예기치옥과 1924년 군산예기권번이 있었고 남원은 1926년 예기조합과 권번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정읍은 1928년 예기조합, 이리는 1929년 기생조합, 1939년 예기조합이란 명칭으로 각각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순창은 기생조합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황미연 책, 107쪽.

18) ‘권번의 자선연주회’, 『매일신보』, 1920. 8. 29. ‘全州券番의 美擧’, 『매일신보』, 1921. 8. 13. ‘연초상의 곤경’, 『동아일보』, 1923. 2. 15. ‘처처편편-예기조합방지’, 『동아일보』, 1925. 1. 26.

19) “단연과 토산애용, 전주 기생도 맹약. 전주권번 오십여 명 기생 중 일부분은 작년 가을부터 단연을 하는 동시에 비단 등을 도무지 사지 아니하고 조선 물산을 쓰기로 실행하여 오던 바, 요사이 이 것을 철저히 실행하자 하여 서약서를 받아 실행단체를 조직 중이라는데 이에 찬성하여 발기인 단 자가 십여 명이요, 지금 취지서와 규칙서를 기초 중이라더라.” ‘단연과 토산애용, 전주 기생도 맹약’, 『동아일보』, 1923. 2. 20.

20) 당시 권번이 있던 자리는 ‘전주부 대화정 77’이다.(동아경제시보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42.) 권번은 권반 업무를 담당하는 권반장이 있었는데, 초기 권반장은 최병철이 10여년간, 말기(1935)에는 임택용이 권번장으로 있었다.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전주시, 1964. 1149쪽 참고.

의 여과 등으로 권번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1939년에는 장병선 외 받기인 21명이 자본금 5만원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창립, 권번을 인수하여 새로운 경영체제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²²⁾ 운영의 방식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권번의 주식회사 전환은 “주로 경찰 당국의 주선으로 풍류계를 포함한 지역 인사들의 자금을 모아 이루어졌으며, 경영난에 빠진 조합을 구제하는 방안”이기도 했다.²³⁾ 전주권번뿐만 아니라 1930년대를 전후 권번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했다.²⁴⁾

주식회사로 전환된 전주권번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1944년 3월에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된다.²⁵⁾ 그러나 이런 권번의 해산은 급작스러운 것만은 아

-
- 21) ‘전주권번 내홍발발 경찰의 간섭 개시’, ‘전주권번폐문’, ‘휴업중이든 전주 권번 부활 유지후원으로’ 등 권번장과 기생들의 임금 문제, 권번 운영 경비 문제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었다. (‘전주예기권번부활’, 『每日申報』, 1925. 3. 13. ‘全州券番 내홍발발 경찰의 간섭 개시’ 『中外日報』, 1929. 10. 9. ‘전주권번폐문?’ 『중외일보』, 1930. 8. 2.)
- 22) 전주권번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과정은 다음 기사에 잘 설명되어 있다. “전주권번은 그간 개인 경영으로 다른 지방에 비하여 그 기초가 빈약한 데다가 대 한해(大旱害)를 당한 근자에 한층 경영난에 빠져 지방 발전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 하여 사계 유지자들이 의논 중이었는데, 이번에 경찰과 충분한 양해가 성립되어서 장병선 외 20명이 받기인이 되어 가지고 즉석에서 5만원의 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인수 경영하기로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전광석화로 등기 수속까지 취하는 동시에 오는 20일 경부터 개업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9. 4. 6.
- 23) 정경운, 앞의 논문(『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56~7쪽. 윤혜신, 『일제시대 기생의 저급화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6, 30쪽 참고.
- 24) 대정권번, 대동권번, 경성권번, 대항권번, 대구권번, 부산권번 등은 1920년대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동래권번은 1933년, 종로권번·봉래권번은 1935년, 한성권번은 1935년, 조선권번은 1936년, 군산 권번은 1937년, 전주권번은 1939년, 마산권번은 1940년에 전환되었다. 전주보다 늦게 예기조합이 설치된 광주권번의 경우, 1932년도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한다. 정경운, 위의 논문(『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56~57쪽 참고.
- 25) 전주권번 관련 자료들에서 전주지역에 전주권번, 낙원권번, 전동권번 등 권번 지칭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 여러 곳에서 전주권번 이외에

昭和十九年九月四日登記
 番地
 算人ニ就任ス 良川昌燮全州府大正町六丁目三〇
 ●株式會社全州券番解散及清算人選任 株主總會
 ノ決議ニ因リ昭和十九年三月八日解散シ左ノ者清

<전주권번 해산 관련
 등기(총독부관보)>

니었다. 권번은 이미 일제가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941년 일제는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면서 일상적 삶을 전시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시켰는데, 이때 이미 일반요리점의 영업시간 등 제한의 폭이 커졌던 것이다.²⁶⁾ 이런 권번 운영의 어려움은 1942년 권번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서, 최고치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서 전주권번의 공식적 종료일을 알 수 있는데, ‘주식회사 전주권번’은 1944년 3월 8일 주주총회를 열고 청산인으로 변호사 ‘良川昌燮’을 선임하여 공식적으로 권번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²⁷⁾

물론 공식적 해산 뒤에도 전주권번은 실질적으로 그 운영형태를 유지한 채 계속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대일의 1949년에 전주권번에서 판소리강사로 있었다는 증언이나, 김원술과 같은 명창들의 구술을 통해 이 시기 전주권번에서 판소리 강사나 판소리의 학습을 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전주권번

은 1944년 3월 공식적 해산 뒤에도, 1950년대 초반에 조직된 전주국악원에

낙원권번과 전동권번 등 전주에 권번이 여러 곳 있었던 것처럼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파악하기로는 전주에는 전주권번만 있었다. 전주권번이 ‘전동’이라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주권번’은 종종 전동권번이라고 불렸다. 또 이 전주권번 근처에 1933년에 개업한 낙원이라는 요정(허산옥이 1943년에 낙원 건물의 일부를 인수받아 행원을 개업하기도 한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낙원권번이라 부르기도 했다.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신아출판사, 2009, 483쪽 참고.

26) 정경운, 위의 논문(『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64쪽 참고.

27) 조선총독부 관보, 제5306호(1944. 10. 10.)

28) 문화재관리국, 『판소리 홍보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87호, 1971, 156쪽 참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모두 넘겨주기까지 전주 지역의 판소리 전승과 교육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도기부터 전주국악원 내용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 전주 권번의 판소리 교육과 판소리 강사

권번은 다양한 공연 활동-놀이(요리점, 개인집), 연주회, 원정·해외 공연 등-을 매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기예의 교육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권번에서는 학예부 같은 형태의 기생학교를 운영하면서 전통 예능을 교육시켰다. 이러한 교육은 엄격한 절차 위에서 진행되었는데, 권번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습 과정과 방법, 주요 교과목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권번의 교육과정은 다년간으로 진행되었다. 1910년대에 설립된 평양기생권번의 경우 8~20세까지 입학할 수 있었는데, 수업 기간만 3년이었고 학년에 따라 수업 과목이 달랐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주고,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퇴학까지 시킬 정도로 권번의 졸업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는 다른 권번도 유사하다. 광주권번의 경우도 수업기간이 1~3년에 달했고, 수업은 전공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나뉘어 오전·오후로 진행되었다. 또 모든 수업과정이 끝나면 책걸이와 연주회를 했다.²⁹⁾ 1923년에 설립된 조선권번의 경우도 수업기간만 1~3년 정도가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룹으로 주요 과목을 습득한 후 개인과목을 학습하고, 졸업 때 삭회와 연주회를 진행했다.³⁰⁾

권번의 수업 과목은 그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소리, 기

29) 이명진, 『광주권번을 통해 본 광주지역 판소리의 전승양상』, 『공연문화연구』 제36집, 공연문화학회, 2018, 148쪽 참고.

30) 이설희, 『『조선미인보감』에 나타난 기생조합과 권번에 관한 고찰』, 한예종 예술전문사, 2009, 42~64쪽 참고.

악, 춤이 학습의 기본이었다. “1923년에 결성된 평양기성권번에서는 기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된 교과목과 교육은 시조, 가곡, 검무, 예상우의무(霓裳羽衣舞), 금(琴), 양금, 가야금, 한문, 시문(詩文), 서(書), 행서, 해서, 도화, 사군자, 령모(翎毛), 산수, 인물, 국어(國語), 독본, 회화 등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³¹⁾ 이뿐만 아니라 권번에서는 기생으로서 필요한 예절 교육과 함께 한문, 서화까지 학습되었다.³²⁾ 이런 측면에서 보면 권번이 교방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했지만, 가·무·악 중심이었던 교방보다 더 다양한 과목을 교육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권번에서도 다른 권번과 비슷한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전주권번의 예능 교육의 교과목은 크게 소리, 기악, 춤 그리고 예절 교육과 서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리는 다시 판소리, 단가, 잡가, 시조, 기악은 양금, 가야금, 거문고, 춤은 승무, 검무, 북춤, 입춤(살풀이)로 세분화되어 교육되었는데, 가야금은 김창조·감삼태, 거문고는 신쾌동, 통소는 유동초, 춤에는 정자선·정형인·정모란, 판소리에는 장판개·김준섭, 시조 최일원, 서화에 김희순 등 당대 명인·명무들이 포진하고 있었다.³³⁾

전주권번은 전반적으로 민속음악과 춤이 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권번들이 일반적으로 판소리 수업을 권번 예능 교육의 핵심에 놓고 있는 것처럼,³⁴⁾ 전주권번에서도 판소리 수업이 필수적이고 핵

31) 신명숙, 『권번의 기예전승을 위한 기생제도와 춤교육을 위한 연구』, 2017, 782~783쪽.

32)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창, 샤미센(三味線), 일본춤, 서양댄스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진 교과목이 권번 수업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황미연, 앞의 책(『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140쪽 참고.

33) 황미연, 앞의 책(『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131쪽 참고.

34) 전라북도 권역 내 권번에서는 판소리가 중요한 교육 교과목이었다. 아래는 전라북도 권번들의 주요 과목표이다. 황미연, 위의 책(『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162쪽,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승무 살풀이춤-전남·북 편』, 문화재연구소, 1990, 9~32쪽 참고.

	소리	기악	춤	기타
전주권	판소리, 단가, 잡가,	양금, 가야금, 거문고	승무, 검무, 북춤, 입	서화, 구연극, 예절

심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어졌다. 전주권변에서 판소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판소리를 즐길 수 있는 귀명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라북도는 근대 이전의 8명창 시대와 근대 5명창 시대에 가장 많은 명창을 배출한 지역으로,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에는 언제나 판소리 관련 명인·명창들이 풍부하게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전주권변에서 판소리 수업을 중요시했던 만큼, 다수의 명창들이 전주권변의 판소리 강사로 거쳐 갔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전주권변에서 판소리 강사를 했던 명창들 중 현재 기록이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창은 장관개, 이기권, 신영채, 김준섭 정도이다.³⁶⁾ 명창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그렇듯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자료들이 대부분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전승 소리와 전주권변에서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명창은 장관개이다. 장관개는(1885-1937) 전남 곡성군

번	시조		춤(살풀이)	교육
남원에 기권변	판소리, 가곡, 시조	가야금, 양금, 북, 장고, 읍률	승무, 화무, 검무, 범 패무	예절교육, 목화, 서 도
군산소 화권변	판소리, 단가, 시조, 가곡		승무, 검무, 포구락, 화무, 살풀이	일본어, 일본노래, 예의법절, 가곡
이리권 번	판소리		승무, 검무, 살풀이	한문, 한글, 서예, 목화, 예의법절
정읍예 기조합	판소리		승무, 살풀이 한량무	제담

35) 권변은 기생들/예기들(여성음악가들)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집단이지만, 권변은 여성음악가들에게만 중요한 공간은 아니었다. 1984년 신분제 폐지 이후 면천되면서 해체되었던 창우들에게도 권변은 학습을 매개로 창우 출신 남성음악가들에게도 지속적인 활동의 장을 제공했던 중요한 공간이었다.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38, 한국국악학회, 2005, 19쪽 참고.

36) 송업봉도 전주권변 판소리 강사로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송업봉은 전북 전주군 출생으로 송우룡의 제자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명창으로 <춘향가>와 <심청가>를 잘했다 한다. 그러나 송업봉이 전주권변에서 활동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판소리유과』), 119쪽. 정노식, 『조선창극사』(북간본), 동문선, 1994, 233~237쪽.

겸면 출신으로, 그의 가계는 세습예인집안이다. 기악명인 아버지 장석중(1863-1936)에게 7세(1891년)부터 거문고와 피리를 배웠다. 아버지의 주선으로 송만갑(1865-1939)을 스승으로 맞아들여 3년 동안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적벽가>를 배웠으며, 송만갑의 수행 고수를 하면서 소리 공부를 더 하였다.³⁷⁾ 1904년(광무 8년)에 송만갑의 부름으로 원각사에 참여하였고, 원각사 폐쇄 후에는 송만갑협률사에 들어가 지방 공연을 하고 다녔다.³⁸⁾ 장안사와 연흥사에 있었을 때 배설향과 함께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장판개는 1920년에 전주권번에 판소리 강사로 들어가서 많은 후진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1930년대 초반 제자였던 배설향과 함께 경주권번에서 판소리 강사를 했고 이때 장월중선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기권(1905-?)은 전북 옥구군 임피 출신으로 판소리뿐만 아니라 거문고, 가야금, 북, 대금도 잘했다고 한다. 이기권 집안 역시 대대로 무업에 종사하던 세습무 집안이었다.⁴⁰⁾ 이기권은 1930년경 김여란과 함께 정정렬에게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숙영낭자전>을 배웠고, 특히 <춘향가>에서도 ‘신연맞아내려온다’ 대목을 잘 했다고 한다.⁴¹⁾ 이기권은 목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남도에는 박동실, 북도에는 이기권’이라는 말을 통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⁴²⁾ 홍정택,

37) 박황, 『판소리 소사』, 신구문화사, 1976, 115~116쪽 참고.

38) 서영화, 『판소리 명창 장판개 가계 연구』, 부산대 석사 논문, 2010, 135~136쪽 참고.

39)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1987, 183~185쪽 참고.

40) 무계 집안이었던 만큼 이기권 형제들 또한 국악에 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행권은 판소리를 이필권은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한다. 이기권의 조카 이창선 또한 판소리뿐만 아니라 피리, 젓대, 장고 잘 했다고 한다. 이창선은 군산국악원 판소리 사범으로 있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41~42쪽 참고.

41) 정양, 유영대, 『전북 판소리의 전승에 관한 조사연구』, 『판소리연구』 2집, 판소리학회, 1991, 82쪽.

42) 송영주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때 이기권의 영향력은 무척 컸다고 한다. “남도 일대에서는 선생으로는 제일인자였을거여. 아마 왜정 때, 전북 근

김유영, 강종철, 김원술, 최난수, 성운선, 이일주, 홍용호 등이 한때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전라북도 명창의 대부분이 이기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기권은 전주권변뿐만 아니라, 이리권변, 군산권변 등에서도 창악 강사를 했다. 최난수가 8살에 전주권변에서 학습을 했다는 걸로 보아 1940년 경, 전주권변에 창악 강사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³⁾

신영채(1915-?)는 전북 부안 사람으로 그 역시 무계 출신이다.⁴⁴⁾ 집안이 가난해서 15세 때부터 옛장수를 하며 혼자 소리를 외치고 다녔는데, 노랑목에 체계 또한 없었지만 목과 목구성은 좋았다고 한다.⁴⁵⁾ 1933년 전도성 명창에게 소리를 배워 소리 법도를 터득했고, 1938년 동일창극단, 1940년에는 조선음악단에 입단하여 이동백과 박녹주와 같은 당대 명창들과도 함께 공연했다. 많은 음악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만 한국전쟁 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홍보가>, <적벽가>를 잘하고 아니라와 불임새에 능숙하였다.⁴⁶⁾ 특히 그는 끝을 탁 끊어내는 이슬털이목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곡성’과 ‘아롱성’은 신기에 이르렀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⁴⁷⁾ 신영채는 해방 전후로 전주권변에서 소리 강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처에서 소리한다는 사람치고 이기권제로 안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후략)” 유영대, 『잊혀진 이기권의 소리를 찾아서』, 『문화예술』 120, 문예진흥원, 1988.

43) 전라북도, 『문화재지』, 대광출판사, 1990, 1282쪽 참고.

44) 신영채 역시 전라도 지역의 무계 집안 출신이다. 이영금에 의하면 정읍 지역의 주요 단골 무계는 ‘전씨 무계’와 ‘신씨 무계’로 파악되는데, 정읍 단골인 전금순의 친정 무계를 통해 파악된 판소리 명창으로는 전학술·전명준·전도성 등”이 있고, “전금순의 외할머니 친정집안 쪽으로 신관옥·신관봉·신영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신영채는 바로 정읍의 신씨 집안 사람이다. 이영금, 『단골집단의 무업 권역과 활동』, 『민속학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104쪽 참고.

45) 박황, 『판소리 소사』, 신구문화사, 1976, 164~5쪽 참고.

46) 박황, 위의 책, 165쪽.

47) 전북대학교 박물관 편, 『정읍지역 민속예능』,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2, 169쪽 참고.

4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판소리유파』, 문화재관리국, 1992, 124쪽 참고.

김준섭(1913-1968)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김준섭은 공창식(孔昌植)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정응민(鄭應珉)에게 <심청가>를, 김정문(金正文)에게 <홍보가>,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를 배웠다. 1935년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단에 참가하여 활동했으며, 1945년 이후 국극사(國劇社)·국악사(國樂社) 등에도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넓혔다. 그는 <심청가>를 잘 불렀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잘했다.⁴⁹⁾ 1947년 이후에는 국악사(國樂社)에서 창극활동을 하는 등, 주로 지방에서 창극과 판소리 공연에 참가하였다. 일제시기에 <심청가 전집>을 여러 명창과 함께 취입하기도 했다. 『전주시사』(1986)를 보면 김준섭이 전주권변에서 소리 강사를 했다고 전해지나 정확한 연도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해방을 전후 한 시기에 정읍권변과 군산권변⁵⁰⁾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전주권변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 이후 타계할 때까지는 전주에 머물면서 <심청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⁵¹⁾

전주권변은 호남의 대표적 권변 중의 하나였고, 강점기 동안 많은 기생수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학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²⁾ 그러나 권변 시기에 어떤 판소리 학습자가 누가의 소리를 학습했는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수의 소리꾼들이 전주 권변에서 소

49) 박황, 앞의 책(『판소리 소사』), 153~154쪽, 참고.

50) 민살풀이춤 명인 장금도(張錦桃, 1928년 9월 13일생)는 군산 소화권변 출신인데, 그녀가 12세에 군산 소화권변에 들어가 이명곤(이기권 조카)에게서 단가를, 이기권에게서 <심청가>를 민옥행에게 <홍보가> <적벽가> <수궁가>를 김준섭에게 <심청가> <춘향가>를 배웠다고 한다. 서정숙, 『장금도 민살풀이 춤사위 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2008, 5쪽 참고.

51) 전북대학교 박물관 편, 『정읍지역 민속예능』, 1968, 178쪽 참고.

52) 이는 당시 권변의 기생 수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동 기생조합은 대정 2년 4월(1913년 4월)에 설립하였는데 기생은 상시 17명이더니 현재는 37명이더라. -후략-” 『전남북의 답편-전주예기조합』, 『반도시론』 2권 8호, 1918. 8. 72쪽. “단연과 토산애용, 전주 기생도 맹약. 전주권변 오십여 명 기생 중 일부분은 (후략).” “단연과 토산애용, 전주 기생도 맹약”, 동아일보, 1923. 2. 20.

리를 배웠겠지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소리 학습자는 최난수, 정미옥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최난수(1931-2013)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예능보유자로 활동하였다. 최난수는 전주권번에서 8세(1938년)부터 이기권에게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를 배웠다고 한다.⁵³⁾ 19세에 서울로 올라가 박초월에게 동편제 〈수궁가〉, 〈홍보가〉를 전수받았고, ‘김연수 창극단’과 ‘임춘행 국극단’ 단원으로 활약했다. 42세에 정읍으로 돌아와 정읍국악원에서 2년 동안 판소리 강사로 있었고, 그 후 군산국악원과 김제국악원 등에서 판소리 강사를 했다. 1976년 제6회 전주대사습대회에서 장원을 수상했고, 1987년부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⁵⁴⁾ 〈춘향가〉 중 특히 ‘어사 춘향모 상봉 대목’을 잘하였다고 한다.

정미옥(본명 정병옥, 1928~2017)은 광주 서구 양림동(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출신이다. 13세 때 광주권번에서 정광수에게 춤과 단가를 배웠다. 14세(1941)에 목포 권번에서 오수암과 최옥산에게 판소리, 이용주에게 검무, 승무, 살풀이 등을 배웠고, 15세에는 박동실 동생 박영실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오수암에게 배운 소리는 〈홍보가〉 ‘초앞~제비노정기’와 〈수궁가〉 일부였고, 박영실에게는 〈심청가〉 ‘초앞~심봉사 눈 뜨는 대목’까지 배웠다. 20세에 전주로 이사 와서 창극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전주권번 있던 신영채에게 단가와 〈수궁가〉 일부를 배웠다.⁵⁵⁾ 정미옥은 1950년대 이후 전주권번이

53)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편, 『문화재지』, 대광출판사, 1990, 1282쪽 참고.
그러나 이보형의 조사에 따르면, 최난수가 8세 때 이리에서 이기권에게 8년간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를 배운 것으로 되어있다.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앞의 책(『판소리 유과』) 134쪽.

54)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편, 『문화재지』, 대광출판사, 1990, 1282쪽 참고.

55) 이보형,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6 판소리 유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1992, 124~125쪽 참고.

이보형의 조사에서 정미옥이 한국전쟁 직후에 전주권번에서 신영채에게 단가와 〈수궁가〉 일부를 배웠다고 하나, 한국전쟁 이후에 전주권번에는

전주국악원으로 바뀐 이후에도 한동안 전주국악원에서 판소리를 배운 것으로 보인다. 1965년부터 2년간은 박봉술에게 <적벽가>를 전수받았는데, 이 박봉술제 <적벽가>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많은 판소리 명창과 판소리 학습자가 전주권변을 거쳐 갔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는 명창은 없다. 오히려 전주권변 시기의 특징은, 전주권변의 주요 판소리 강사들에게서 보이는데, 강사 대부분이 전주 주변지역 출신 소리꾼들이라는 점이다. 또 이들 중 여럿이 이 지역의 무계 출신들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전주권변이 여러 판소리 명창들에게의 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주지역 판소리가 지속적으로 전개·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주국악원 개원, 판소리 교육의 지속과 변화

1944년 공식적 해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되었던 전주권변은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 등 폐지령>⁵⁶⁾을 기점으로 폐지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여러 권변들이 사설국악원 형태로 변화되어 갔는데, 전주권변도 국악교육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44년 공식 해산과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 등 폐지령> 이후에도 전주권변은 1952년 전주국악원이 설립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김동준과 홍정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미옥이 시기를 잘못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56) 1947년 8월 8일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공창제도폐지령’안이 통과되고, 그해 10월 28일 법령으로 확정, 11월 14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7호 ‘공창제도등 폐지령’으로 공포되었다.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1, 224쪽 참고.

57) 전주국악원 설립연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가미노 치에가 그의 논문에서 전주국악원이 1952년에 창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미노 치에, 『1970년대 일본 연구자 고이즈미후미오 자료 중 나금추 설장구 녹음 분석』, 『동양

공창제 폐지령 직후 과도기 전주권번에는 김원술과 공대일 등이 전주권번 판소리 강사로 활동하며 제자들 가르쳤다. 김원술은 해방직후부터, 공대일은 1949년 판소리 강사로 있었다.⁵⁸⁾ 김원술은 1921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16살 때 전도성 문하에 들어가 판소리를 배웠다. 당시 3년간의 기간 동안 전도성으로부터 <춘향가>, <홍보가>, <적벽가> 등을 배웠고, 20살 무렵에는 전북 권역의 많은 소리꾼들이 그랬듯이, 이기권에게 <숙영낭자전>을 25세 무렵에는 박동실에게 <역사가>를 배웠다.⁵⁹⁾ 1948년 전주에서 개최된 호남명창대회에서 신영채, 이기권에 이어 3등에 입상하기도 했지만, 호남명창대회 이후에는 직접 소리를 하지 않고 국악 공연단체의 운영에 전념하였다.⁶⁰⁾ 해방되기 전에 '전동권번'(지금의 행원)⁶¹⁾에서 소리를 2년 가르치고, 해방 후 3년은 전주국악원에서의 소리를 가르치기도 했다.⁶²⁾

공대일(1911~1990)은 성원목과 정광수와 함께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소리꾼으로 언급되는 인물로, 15세에 팔촌형 공창식에게 <홍보가>와 <춘향가>를 배우며 소리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대 여러 명창들에 소리를 받았는데, 박동실에게 <심청가>, 성원목에게 <춘향가>, 임방울에게 <수궁가> 등의 소리를 내려받았다.⁶³⁾ 공대일은 1945년에 광주권번에서 판소리 강

음악』 14,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17, 14~15쪽 참고.

58) 공대일은 1949년에 전주권번에 오기 전에 1945년에는 광주권번, 1952년에는 정읍권번에서 판소리 강사를 했다. 문화재관리국, 『판소리 홍보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71, 156쪽 참고.

59) 김원술은 이기권에게 학습할 당시 홍정택과 강종철이 이기권에게 소리를 배우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전북대학교박물관 편, 『정읍지역 민속예능』, 170쪽 참고.

60) 전북대학교 박물관 편, 위의 책, 171쪽 참고.

61) 김원술이 소리를 판소리를 가르쳤다는 '전동권번'은 '행원'을 말한다. '행원'은 남전 허산옥(김제출신, 16세에 남원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됨)이 1943년 '낙원'의 일부를 인수해 연 요리집이다. 김취정, 『랍전 허산옥(1924~1993)과 전주지역』, 『인물미술사학』 10, 인물미술사학회, 137쪽 참고.

62) 정양·유영대, 앞의 논문(『전북 판소리의 전승에 관한 조사 연구』) 84쪽 참고.

사를 했고, 전주에서는 1949년에 판소리 강사로 있었는데, 1952년에 정읍권 변 판소리 강사로 가기 전까지 전주권변 판소리 강사로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⁴⁾

전주권변은 1952년 ‘전주국악원’으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마무리 하게 된다. 새롭게 개편된 전주국악원은 새로운 공간에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기존 권변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전주권변 건물의 남쪽 부근에 위치하여 역시 전주 전동에 자리를 잡았다.⁶⁵⁾ 전주국악원은 전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동국악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주국악원 건물은 전주의 유지였던 전경석, 김명중 등의 회사금에 의하여 건립되었으며 전경석의 거액 지원으로 이루어졌다.⁶⁶⁾ 초대 국악원 원장이 권변에 있었던 ‘유당 김희순’이었다. 김희순은 전주권변에서 시화를 가르쳤던 예인으로, 이를 통해서도 전주 권변과 전주국악원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권변이 국악원으로 전환되면서 그 성격 또한 변화하였다. 기존 공간이 기생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국악원은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었다. 권변이 소수의 기생 중심의 학습과 전승 공간이었다면, 국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인들에게 좀더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주국악원에서 소리를 배우는 이는 최승회를 비롯하여 30여 명이 있었고 북 배우는 이는 70여 명이 있었다 한다.”⁶⁷⁾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고, 동호인을 중심으로 고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이 시기의 국악원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개편된 전주국악원에는 김동준과 홍정택 명창이 판소리 강사로 있었고, 이 시기 활성화되기 시작한 판소리 고법에는 박창율이 강사로 있었다.⁶⁸⁾

63) 이명진,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속학연구』 15, 2010, 270~275쪽 참고.

64) 문화재관리국, 『판소리 홍보가』, 문화재연구소, 1971, 156쪽 참고.

65)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전주시, 1964. 1150쪽.

66) 황미연, 『전북국악사』,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240쪽.

6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판소리 유파』), 119쪽 참고.

68) 당시 전주국악원에는 “판소리에 김동준(1929~1990), 시조에 정경태

김동준(1928-1990)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출신이다. 명창 장판개(1885-1937)를 통해 소리를 시작해, 박동실(1897-1968)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동실에게서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를 전수받고, 이후 박봉술(1922-1989)에게 <적벽가>를 전수받았다.⁶⁹⁾ 1952년 25세에 김연수는 우리국악단에 입단해 창극 활동도 하고,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약 6년간 전주국악원에서 판소리 강사를 하면서 제자를 양성했다.⁷⁰⁾ 전주국악원 판소리 강사 이후 1962년 국립창극단에 고수로 입단하고, 1989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예능보유자로 인정 받았다.

홍정택(1921-2012)은 전라북도 부안 생으로 세습무계 출신이다. 14세에 임방울, 전일도, 조몽실이 하는 협률사를 따라 나서면서 소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19세에 변성기로 협률사 생활을 접고 부안 월명사에서 이기권에게 학습하면서 성대를 회복하지만, 김연수의 ‘우리국악단’에 들어가 창극 활동을 하면서 다시 목이 상했다 한다.⁷¹⁾ 이기권에게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를 학습하고, 김연수에게 수궁가를 배웠다.⁷²⁾ 35세부터 군산, 대구,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소리 강사를 하고, 1950년대 중후반부터 전주국악원의 소리 강사를 하면서 전주에 정착하게 된다. 1984년에는 판소리 <수궁가>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고, 1986년에는 전라북도립국악원 초대 판소리부 교수가 되었다.

고법 강사로는 박창을(본명 박귀성)이 있었는데, 원래 박창을은 김제 봉남면 출신이다. 최동현에 따르면 박창을은 1910년 경에 태어나 1980년에 경에

(1916~2004), 기악에 전추산, 신쾌동, 무용에 정형인, 짓대에 신달용이 재직하였고, 후기에는 판소리에 홍정택, 가야금에 유대봉, 풍류에 임흥근 등 당대 최고의 명창·명인·명무가 포진하였다.” 『전북예술사』 1, 100~101쪽.

69) 김동준, <적벽가 전집>, 신나라뮤직, 1999.

70) 최동현, 『판소리 명창과 고수 연구』, 신아출판사, 1997, 325~340쪽 참고.

71)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 작가, 1999, 250~253쪽 참고.

7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판소리 유파』), 127~128쪽 참고.

죽었는데, 본래 음악하던 집안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박창을은 해방 직후에 전주국악원에서 북을 가르쳤는데, 6·25 부역 혐의로 수감되었지만 송영주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풀려난 이후에도 6·25 후에도 전주국악원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⁷³⁾

전주국악원 최고의 전성기였던 이 시기, 전주국악원에서 소리를 배운 사람은 정미옥, 강광례, 이성근, 성준숙, 최승희, 판소리 고법에 주봉신 등으로 파악된다.⁷⁴⁾ 먼저 강광례를 살펴보면 강광례(1933-2012)는 10세 무렵 정광수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18세에 별님창극단에 입단하면서 창극 활동을 하였다. 20세 전후로 전주국악원 판소리 강사였던 김원술과 김동준에게 판소리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⁷⁵⁾ 이성근(1936-)은 1956년 21세에 김동준으로부터 심청가 초앞에서 범피중류까지, 춘향가 일부와 열사가를 배우고, 30세 무렵에는 <심청가>와 <춘향가> 대목소리를 배웠다.⁷⁶⁾ 그의 판소리 고법 또한 김동준과 박귀성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최승희(본명 최채선, 1937-)은 18세에 당시 군산성악회 강사였던 홍정택에게서 단가 <사창화류>, <천상아재> 등을 배웠다. 19세에 전주국악원에서 김동준으로부터 단가와 박동실 바디 <심청가> 일부를 배우고, 다시 홍정택으로부터 <춘향가>, <홍보가>, <수궁가> 일부를 전수받았다.⁷⁷⁾ 성준숙(예명 민소완, 1944-)은 전주 출신 소리꾼으로, 1958년 15세에 주광덕(1917-?)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판소리에 입문했다. 17-18세에 김동준에게 <춘향가> 대목소리와, 19-20세에 강도근(1918~1996)에게 <홍보가> 일부를 익히고 이후부터는 이일주와 오정숙으로부터 동초바디 바탕소리를 차례대로 배웠다.⁷⁸⁾ 주봉신(1934-2016)은 16세

73) 최동현, 『전라도 북부 지역 판소리 북가락과 고법에 관한 연구』, 『판소리 연구』 3, 1993. 284쪽 참고.

74) 정미옥은 3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75) 유영대·정양, 『전북 판소리의 전승에 관한 조사연구』, 『판소리연구』 2, 판소리학회, 1991, 90쪽 참고.

7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앞의 책(『판소리 유파』), 121~122쪽 참고.

7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위의 책(『판소리 유파』), 127쪽 참고.

7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위의 책(『판소리 유파』), 120~121쪽 참고.

(1949년) 이만암에게 <홍보가>를, 19세(1952년)에 이운학에게 <춘향가>를 21세 이수남에게 <춘향가>를 배웠는데, 이 무렵 박창을에게 고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⁹⁾ 이 시기 전주국악원에서 학습한 이들은 이후 전북지역 소리문화의 핵심 인력들로 성장하게 된다. 강광례, 최승희, 성준숙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이성근과 주봉신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장단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해방 직후부터 국악 전승에 부흥기를 맞던 전주국악원은,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1958년경 분란에 휩싸이며 침체하게 된다. 1950년대 말에 원장이었던 김희순이 국악원 건물의 자의로 매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⁸⁰⁾ 다행히 전주국악원 건물 문제로 위기에 있을 때, 당시 전북일보사 박용상 사장의 성원과 오재경 문공부장관, 그리고 유지였던 오명순 등의 노력으로 ‘청학루’ 건물에 새롭게 결성한 국악협회와 전주국악원 공간을 마련하였다.⁸¹⁾ 그러나 1964년 청학루 자리에 비사벌 예술학교가 만들어지고, 1979년에는 예림예술학교로 후에는 성은여고로 바뀌어가면서 점차 국악과 상관없는 학교가 되어 버렸다.⁸²⁾ 청학루가 예술학교로 바뀌면서 전주국악원은 사실상 그 기능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학루로 옮길 당시에 판소리 강사로 있었던 홍정택·김유영은 1964년 청학루가 비사벌 예술학교가 되면서 청학루를 나오게 된다. 이후 홍정택과 김

79) 주봉신은 이후 이정업에게 장단을 배우고, 1976년에 박동진을 만나면서 박동진의 전속 고수가 된다. 최동현, 『전라도 북부 지역 판소리 북가락과 고법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3, 1992, 289~290쪽.

80) 전주국악원이 분란에 휩싸였을 당시 김세영과 김진석이 강용구, 임흥근, 홍현식 등을 지도위원으로 초빙하고 강도근(1918~1996)을 판소리 강사로 초청하여 백도여관 2층에 ‘전북국악원’을 따로 설립하기도 한다. 설립 2년 후에 잠시 전주국악원과 병합하기도 하지만, 전주국악원이 매각된 후 다시 분리되었고 10여 년간 운영되었다가 원생감소로 폐원되었다.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대광출판사, 1986, 1150~1151쪽 참고.

81)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151쪽 참고.

82) 최동현, 『전주 판소리와 전주대사습』,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2011. 134쪽 참고.

유앵은 함께 ‘국악협회’ 사무실을 다시 만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판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⁸³⁾ 전주지역에 동초 바다가 확산되는 시기도 이 무렵부터이다. 1960년대 후반 서울에서 활동하던 오정숙이 잠시 전주에 머물게 되면서 동초 바다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⁸⁴⁾ 이 시기 이일주(1971년 무렵)와, 조소녀(1967년 무렵), 성준숙(1970년 무렵) 등이 동초 바디를 받아들이으로써 동초 바다가 전주의 가장 큰 바디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국악원 해체된 이후, 전주 소리관은 판소리 전승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이 지속되다가, 1979년 전주시립예술단과 1986년 도립국악원이 설립되면서, 기관 중심의 안정된 전승 기반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⁸⁵⁾ 전주국악원이 운영된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았지만, 전주국악원은 다수의 소리 명창들과 고수들을 배출하면서 전주지역 판소리가 단순한 전승의 수준을 넘어 판소리 공급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전주는 판소리에 관한 상징적인 도시이자 활발한 전승 공간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 같은 판소리 교육·전승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곳을 통해 학습했던 명창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주지역이 활발한 판소리 생산·전승공간으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기관들의 설립·운영 과정과, 그 공간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 두 기관의 설립·운영 과정과 그 기관에서 활약한 판소리 명창들의 이

83) 홍정택·김유앵 인터뷰(김성식·이영배·백은철 조사, 2008. 8. 8.)

84) 최동현, 『명창 오정숙의 생애와 예술』, 『국창 오정숙 삶과 예술』, 전주역사박물관, 2015, 104쪽 참고.

85) 도립국악원 개원 당시 홍정택, 이일주, 최승희가 초대 판소리 강사로, 이성근이 고법 강사로 초빙되었다. 도립국악원 홈페이지 참고(kukakwon.jb.go.kr).

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권번은 근대적 기생조합 형태로, 기생들의 국악 교육 등이 이뤄지는 근대적 기생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권번은 기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공간이기도 했지만, 전주지역 명인, 명무, 명창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전주권번은 전주기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1913년 ‘전주남문’ 쪽에 최초 설립되었고, 1920년대 초반 일제의 공창화 정책 변화로 인해 권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호명되었다. 전주권번은 그 규모와 예기의 수준에서 면에서 다른 지역 권번에 뒤지지 않았다. 1939년 운영난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1944년 공식적으로 해산되지만, 전주권번의 실질적 운영은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전주권번은 1947년 <공창제 폐지령>을 이후로 실질적인 해체수순을 밟게 되고, 1952년에 ‘전주국악원’이라는 기관으로 새롭게 재정비 된다. 전주국악원 초대 원장은 권번 출신 강사였는데, 그만큼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은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국악원은 권번의 기능과 역할을 승계하고 하되, 전주권번과는 많은 부분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공간이었다. 기본적으로 동호인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었고, 수업들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주국악원에서는 판소리 고법이 활발하게 전승되었다. 그러나 전주국악원 역시 그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의 문제로 분란에 휩싸이면서 1960년대 초반 해체되면서 그 역할을 마감하였다.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 판소리 교육과 전승의 중요 기관이었던 만큼 당시 전주지역 활동 명창들 대다수가 이곳을 거쳐 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주권번의 판소리 강사로 장관개, 이기권, 김준섭, 신영채 등이 있었다. 이곳에서 학습한 사람은 최난수와 정미옥 등이었다. 해방 후 과도기 전주권번에서는 공대일과 김원술이 판소리 강사로 있었다. 전주국악원 시기에는 김동준, 홍정택, 박창을(고법) 등이 판소리 강사로 있었다. 전주국악원 시기에 소리를 배운 사람은 최승희, 강광래, 이성근, 성준숙, 주봉신(고법) 등이 있다.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 판소리 강사와 제자들 사승 관계를 볼 때, 이 시기 전승

의 흐름을 형성한 소리는 정정렬 소리를 계승한 이기권(이기권 제자: 김원술, 김동준, 홍정택 등)의 소리와 박봉술 바디 적벽가를 계승한 김동준(김동준 제자: 이성근, 정미옥 등)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⁸⁶⁾

전주 판소리 지형은 이 시기 이후로도 끊임없는 변화하며 그 얼굴을 변화시키고 있다. 홍정택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이기권의 소리는 전승이 약해지고, 최승희가 김여란으로부터 받아들인 정정렬 바디와 이일주·오정숙을 중심으로 한 동초바디가 강해진다. 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 이후의 전주지역 판소리 전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논문은 전주지역 판소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기관을 바탕으로 전주지역 판소리 전개·전승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만족하고, 전주국악원 해체 이후 좀더 다변화되는 전주 판소리 지형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전주지역의 소리는 다양한 유파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은 나름의 사적 두께와 외연을 갖고 있다. 이 공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86) 이 시기 성운선, 장녹운, 최난수 등도 전주 판소리 지형을 다채롭게 수놓은 명창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주권번·전주국악원과 큰 관련 없이 활동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명창들은 전주에서 활동했지만 전주에 터를 잡지는 않았다.

참 고 문 헌

- 가미노 치에, 「1970년대 일본 연구자 고이즈미후미오 자료 중 나금추 설장구 녹음 분석」, 『동양음악』 14,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17, 14~15쪽.
-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38, 한국국악학회, 2005, 19쪽.
- 김동준, <적벽가 전집>, 신나라뮤직, 1999.
- 김취정, 「랩전 허산옥(1924~1993)과 전주지역」, 『인물미술사학』 10, 인물미술사학회, 137쪽.
- 동아경제시보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42.
- 문화재관리국, 「관소리 홍보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71.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승무 살풀이춤-전남·북 편』, 문화재연구소, 1990.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관소리 유파』, 문화재연구소, 1992.
- 박황, 『관소리 소사』, 신구문화사, 1976.
- 박황, 『관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1987.
- 서영화, 「관소리 명창 장판개 가계 연구」, 부산대 석사 논문, 2010, 135~136쪽.
- 서정숙, 「장금도 민살풀이 춤사위 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2008, 5쪽.
-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1)」,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435쪽.
- 송연옥, 「대한 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 과정-」, 『한국사론』 40, 1998, 261쪽.
- 신명숙, 「권변의 기예전승을 위한 기생제도와 춤교육을 위한 연구」, 2017, 782~783쪽.

- 양동숙, 『해방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1, 224쪽.
- 유영대, 『잊혀진 이기권의 소리를 찾아서』, 『문화예술』 120, 문예진흥원, 1988.
- 윤혜신, 『일제시대 기생의 저급화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30쪽.
- 이명진, 『명창 공대일의 삶과 예술세계』, 『실천민속학연구』 15, 2010, 270~275쪽.
- 이명진, 『광주권번을 통해 본 광주지역 판소리의 전승양상』, 『공연문화연구』 제36집, 공연문화학회, 2018, 148쪽.
- 이설희, 『『조선미인보감』에 나타난 기생조합과 권번에 관한 고찰』, 한예중 예술전문사, 2009, 42~64쪽.
- 이영금, 『단골집단의 무업 권역과 활동』, 『민속학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104쪽.
- 이영금, 『조선 후기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국어문학』 53, 국어문학회, 2012, 97~126쪽.
- 전라북도, 『문화재지』, 대광출판사, 1990.
- 전라북도, 『전북의 판소리』, 전라북도, 2003.
-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 전북대학교 박물관 편, 『정읍지역 민속예능』,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2.
-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신아출판사, 2009.
-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전주시, 1964.
- 정노식, 『조선창극사』(복간본), 동문선, 1994.
- 정경운, 『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국학연구론총』 18, 2016, 47-48쪽.
- 정양·유영대, 『전북 판소리의 전승에 관한 조사연구』, 『판소리연구』 2, 판소리학회, 1991.
- 황미연, 『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민속원, 2012.

- 황미연, 『전북국악사』,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 최동현, 『판소리 명창과 고수 연구』, 신아출판사, 1997.
-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 작가, 1999.
- 최동현, 『전주 판소리와 전주대사습』,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2011.
- 최동현, 『명창 오정숙의 생애와 예술』, 『국창 오정숙 삶과 예술』, 전주역사박물관, 2015.
- 최윤영, 「1910년대 기생들의 춤 교육과 공연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쪽.
- 자료: 『매일신보』, 『中外日報』, 『동아일보』, 조선총독부 관보, 『반도시론』, 전북도립국악원 홈페이지

【Abstracts】

**A Study on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Aspects of
Pansori in Jeonju Region
- Focusing on Jeonju Gwonbeon and Jeonju Gugak
Institute**

Baek, Eunchul

Jeonju is the core city for the transmission of pansori, as well as a city in which pansori-related performances are lively put on. Competitions and festivals such as 'Jeonju daesaseup nori,' 'Wansan National Gugak Festival,' and 'Jeonju Sori Festival' are held every year, and 'changgeuk' performance by Jeonbuk Provincial Changgeuk Company and 'madang changgeuk' by Jeonju Cultural Foundation are also held continuously. In addition, Jeonju, in which a number of pansori myeongchang (master singers) including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nsori reside, passes down pansori livelier than any other city.

Behind the growth of Jeonju into such a place for the lively transmission and supply of pansori were Jeonju Gwonbeon and Jeonju Gugak Institute. Jeonju Gwonbeon was a space established in the 1910s for educating gisaengs about singing, dancing, and music, and was the life base of local virtuosos and renowned singers as well as the stronghold of gugak education until directly after Independence. The Jeonju Gugak Institute was a private institute for gugak organized after Jeonju Gwonbeon was dissolved, and it took charge of gugak education

until 1960 when it was also dissolved. That is, modern and contemporary pansori in Jeonju region could develop with these two spaces as the foundation.

However, despite the weight carried by Jeonju Gwonbeon and Jeonju Gugak Institute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pansori in Jeonju region,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two organizations. Neither data nor research on master singers in the two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has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collected relevant data as much as possible, and investigated the processe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of master singers in the spaces. Through this, it was also tried to grasp the process and aspects of pansori transmission in Jeonju region.

Key Words: Jeonju pansori, Jeonju Gwonbeon, Jeonju Gugak Institute, Jeonju Master-singer, Hong Jeongtaek, Lee GiGwon, Choi Seunghui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